

국내 동호회 100여팀 참가...한국수영 저변 확대 기여



마스터스세계수영대회 효과

‘2019 광주세계마스터스수영선수권대회’를 계기로 국내 수영 동호인 저변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84개국 60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 국내에서도 100여개 동호회, 1000여 명이 참가하면서 한국수영 동호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광주세계마스터스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생

참가 선수 1000여명...동호회 관심
“해외대회 못 가...광주대회 반가워”
수영장 태부족...시설 확충 가장 시급

활체육 가운데서 배드민턴 다음으로 수영 동호회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대회에 일반 경영 동호회 외에 아티스틱수영, 오픈워터수영, 다이빙, 수구 팀들도 많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는 경영 동호회가 76개로 800여명이 참여했으며, 오픈워터수영이 7개 동호회에 50여명, 다이빙 동호회가 5개 팀에 40여명, 수

구가 3개 동호회에 40여명, 아티스틱수영 동호회가 3개 팀에 9명이 참가했다.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수영 동호인들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은 회원 수가 4만7000여 명이나 되는 동호회도 있지만 2~3명에 불과한 소규모 동호회도 있다. 156명이 출전한 수영동호회 ‘SWIMON’의 박정민(일산) 회장은 “회원들이 마스터스대회가 외국에서 열려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광주에서 개최돼 무척 반갑고 참가 자체가 영광이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동호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50m 풀 등 경기장 시설이 부족해 수영하려면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며 “특히 국제수영연맹(FINA)의 규정과 물에 비해 우리 수영의 현실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아쉬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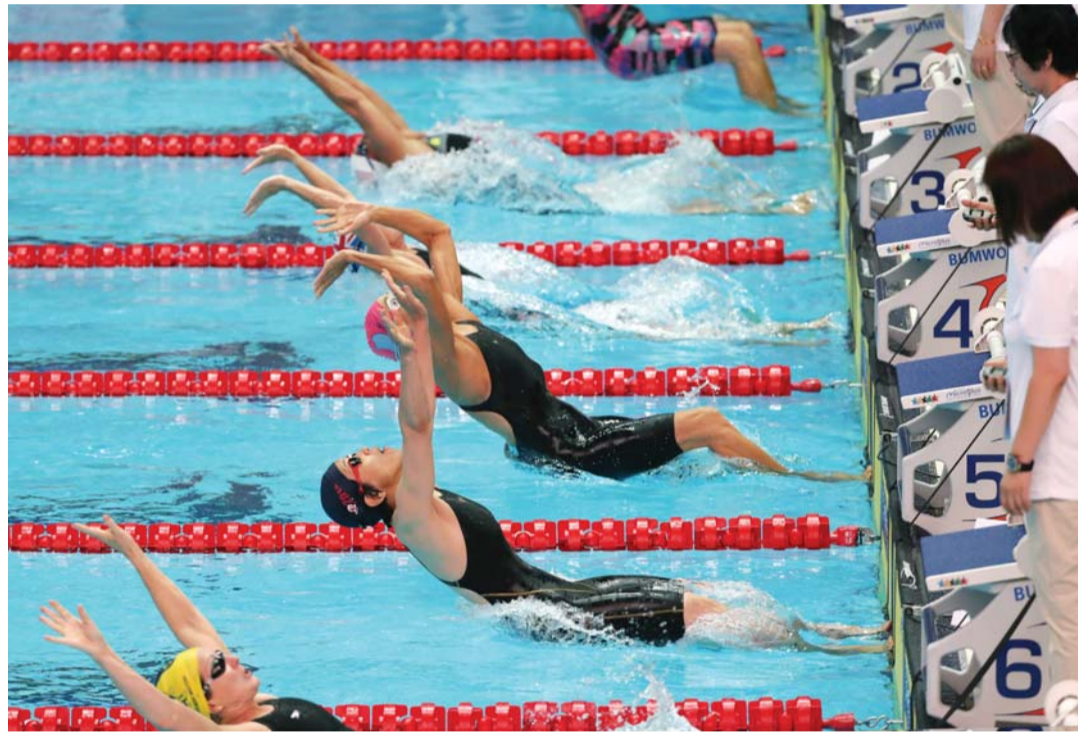
서울 오픈워터수영 GPG팀 회원 김현철(서울)씨는 “파도도 잔잔하고 주변 환경이 너무 아름다운 여수 바다에서 경기를 치러 행복했다”며 “매년 여수 바다에서 정기적으로 오픈워터수영대회가 개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자 수구 경기에 참여한 서울 OLPAC Water polo 팀의 코치인 이준희(서울)씨도 “실력 차가 많이 나지만 외국 선수들과 그 나라에 가서 다시 경기를 약속하는 등 많은 친구가 생겼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수영도시 광주, 수영강국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레저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엘리트 선수 육성, 수영 지도자 양성, 수영의 대중화, 생존수영 확대를 위해 이번 대회의 유산으로 한국수영진흥센터(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 엘리트 수영과 마스터스 수영의 구분 없이 수영스타 등용문이 될 수 있는 가정 광주수영선수권대회와 동호인들을 위한 광주수영마스터스대회 개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13일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마스터스수영선수권대회 60세 이상 64세 이하 배영 여자 200m에 출전한 각국 선수들이 출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후손 초청 오찬’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독립유공자·후손 초청 오찬 “역사 성찰하며 휘둘리지 않는 나라로”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우리에게 역사를 성찰하는 힘이 있는 한 오늘의 어려움은 우리가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나라로 발전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을 이틀 앞둔 이날 독립유공자 및 유공자 후손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의 공존·상생·평화·번영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잊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74년 전 우리는 광복을 맞아 새로운 나라를 꿈꿨고,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 쉬지 않고 달렸다”며 “일본과도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맺어왔고,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깊이 성찰하길 바라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최근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에 이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양국이 함께해온 우호·협력의 노력에 비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가며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

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오찬에는 생존 애국지사 9명과 광복절 경축식 독립유공자 서훈 친수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등 총 160여 명이 초대됐다.

또 미국·중국·러시아·카자흐스탄·프랑스·호주 등 6개국에 사는 독립유공자 후손 36명도 참석했다.

독립유공자 홍창식 선생의 딸인 뮤지컬 배우 홍지민 씨와 역사아인연합창단은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공연을 선보이고 안중근 의사의 외손녀인 황은주 여사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후 가족이 겪어야 했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했다.

함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회장으로 오찬에 참석한 재야 원로 함세웅 신부는 ‘극일항쟁(克日抗爭)’이라는 문구가 담긴 붓글씨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대대적으로 발굴·표상한 유공자의 유가족들도 초청됐다. 재물 한국민회 2대 회장을 지낸 홍재호 선생의 차남 장자크 홍 푸안 씨는 이날 오찬에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 것이 자랑스롭다”고 소감을 밝힌 뒤 부친이 고국을 그리워하며 즐겨 불렀다는 아리랑을 불렀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자유형 100m 완주 93세 최고령 할머니에 쏟아진 박수갈채

장애인 이동현씨 인간 승리 감동

‘2019 광주세계마스터스 수영선수권대회’에서 나이와 장애를 이겨내고 힘차게 물살을 가르는 선수들이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받고 있다.

13일 오후 광주세계마스터스 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는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 주 경기장에 일순간 함성과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번 대회 최고령자인 93세 할머니의 역경을 응원하는 관중들의 함성이었다. 여자 자유형 100m(85~90세급)에 참가한 아마노 토시코(93·일본) 씨는 비록 빠르지는 않았지만 힘차게 자신만의 레이스를 펼쳤다. 하지만 다른 두 선수가 이미 결승선을 터치했을 때도 아마노 선수는 겨우 반환점에 다다랐다. 지켜보던 각국 선수단과 응원단은 행여 지지치나 않을까, 중간에 포기하지나 않을까 가슴을 졸이며 지켜봤다.

결승선에 가까워질 즈음 관중석에서 하나둘 박수가 시작되더니 이내 전 경기장을 가득 채웠다.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아마노 선수는 결승 패드를 터치했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한마음으로 그녀를 응원하고 축하했다. 그의 기록은 4분 28초 06. 기준기록인 3분 55초를 넘지 못해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나이를 잊은 그녀의 도전은 이번 대회에서 가장 큰 울림을 주기에 충분했다.

경기 후 아마노씨는 “이 아름다운 경기장에서 수영을 할 수 있어 너무나도 행복했다”면서 “땅에서는 무리가 있지만, 물속에서는 움직이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며 웃었다.

사실 아마노씨는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로 이동했으며, 이날 경기에서도 출발대에 오르지 못하고 다른 선수와는 달리 바닥에서 출발했다.

아마노씨는 “30여년 전부터 술한 대회에 출전해

왔다”며 “다음 대회에도 계속 나갈 것이며 100살까지는 대회에 출전하고 싶다”고 의욕을 불태웠다.

이번 대회 경영 경기에 출전한 자폐 장애 1급인 이동현(29)씨도 비 장애인들과의 경쟁에서 소중한 기록을 얻어냈다. 이씨는 이날 오후 남부대 주 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자유형 100m에 참가했다. 같은 조 6명의 선수와 경기를 펼친 그는 여주 끝에 1분 4초 50의 기록으로 조에서 3위로 결승 패드를 찍었다. 관중석에서는 이씨의 아름다운 도전에 환호와 박수가 나왔다.

어머니 정순희(58)씨는 “비장애인과 당당히 겨뤄 최선을 다했기에 오늘 경기에 만족한다”며 “오늘 경기를 통해 사람들과 부대끼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조금이나마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경영 25~29세 그룹 자유형 100m를 비롯해 접영 50m(14일), 접영 100m(15일) 등 3개 종목에 출전한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1566-9988

116 40 point 8 5 1
 J10 20 point 1 6 5 2 4
 J8 14 point 6 8 2 4 7 5 8 1
 J7 12 point 2 5 1 6 4 9 7 8 3
 J6 10 point 1 3 0 7 5 8 4 9 2
 J5 8 point 2 4 6 3 7 1 2 8 0
 J3 6 point 4 6 2 1 0 9 7 3

돋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돋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 신세계안과 옛. 밝은광주안과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